

장수군 '효' 마을 이룡마을 화제

孝 문화 기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 예산 5억 확보

장수군 산서면 이룡리 이룡마을이 47년째 효 잔치와 합동 세배 등을 펼치면서 대표 효(孝)마을로 자리 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장수군은 산서면 이룡마을이 2019년 효 문화를 기반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율개발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는다



장수군은 산서면 이룡마을이 2019년 효 문화를 기반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율개발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의 내용은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마을회관 리모델링(효 문화관 포함), 안전한 오뚝길 정비, 오뚝 화목 가족 구성, 오뚝의 날 운영 등 마을 기초생활기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산서면 이룡마을은 잊혀져가는 효를 지켜가는 마을로 47년째 해마다 잔치, 세배 합동 세배 등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를 자체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룡마을 추진위원장 한병원 이장은 "살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동네를 돌면서 어르신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풍습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 이룡마을은 끊어진 적 없이

합동 세배를 하고 있다"며 "그 덕분인지 어르신과 젊은 이들과 유대관계와 효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로 알려져 6년 동안 마을 인구가 40명이 늘어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길재 과장은 "마을 특색에 알맞은 사업을 펼쳐 주민들 삶이 더 풍요로운 마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회 끝날때까지 안전하게 기량 펼쳐주길”

무주군, 전북동계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일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을 찾아 알파인 스키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참가 중인 무주군 선수들을 격려했다.

알파인 스키 경기(회전, 슈퍼대회전)가 열린 용평리조트와 바이애슬

론 스프린트경기(3km, 6km, 10km), 크로스컨트리 클래식(3km, 5km, 10km) 경기가 펼쳐진 알펜시아 스키장에는 무주군 체육회 송재호 수석 부회장과 전북스키협회 김국진 부회장, 전북바이애슬론연맹 김순배 전무이사,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김호영

감독을 비롯한 각 학교 인솔 교사들과 종목별 지도자들, 학부모와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황 군수는 선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뽐내시는 열기가 설원을 녹일 듯이 뜨겁다"며 "어려운 환경,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와준 여러분께 대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전북을 대표하는 선수로, 무주가 낳은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게 기량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한 무주군 출신 전북대표 선수단은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5명을 비롯해 도체육회 소속 선수단, 그리고 무주와 무풍, 안성, 설천, 부남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선수 등 76명으로, 22일까지 바이애슬론(2.19~22.)과 크로스컨트리(2.20.~22.), 알파인스키(2.20.~22. / 용평), 스노보드(2.19.~20. / 휘닉스 파크) 등 종목에서 쉴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군수는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농촌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강신정 씨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장 취임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장이·취임식이 20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개최됐다.

색소폰 연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윤여일 부군수,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연합회 정미숙 회장과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신정 회장(55, 안성면)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해 관심을 모았다.

강 회장은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은 물론, 농촌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봉사교육을 주도해 무주군 위상을 높이는 단체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2007년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한 강 회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안성면 지역 총무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안성면 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안성면 지역 회원들 대

상으로 인력은행은 운영하며 사과꽃과 열매숙기를 해 기금을 마련하고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해 귀감이 되기도 했다.

윤여일 부군수는 취임식에서 "신임 회장과 손발을 맞춰가는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생활개선회무주군연합회의 역량은 더욱 커지고 회원여러분의 열정은 더 뜨거워질 것"이라며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하는 데서도 여러분의 역량이 뭉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회장을 역임(반딧불축제 등 지역 축제에서 먹거리 장터 운영 이등 돌기,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등)한 최선자 회장(47세, 적상면)은 2010년부터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적상면 회장을 지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공직기강 특별감찰

진안군은 20일 11개 전체 읍면에 대한 복무상황 등 공직기강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군은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0일부터 특별감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을 불시에 점검하여 군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집중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요 감찰분야는 △근무 기강 해이, 보안 관리 미흡, 음주운전, 갑질 행위 등 내부취약 분야와 △공품·향유수수 등 부정청탁 분야 △생활민원 지연, 안전관리 미흡 등 주민불편분야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4주간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 재무감사를 실시하며 업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대민 불편을 초래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새 소득사업 전개

진안군은 20일 2019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김필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농업관련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위원이 참석해 농가 소득향상과 새로운 기술을 전파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최종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범사업은 총 6개 분야에 신규사업 22개, 계속사업 16개 총 38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9억 6000만원이며 이중 약 8억 6000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총사업비 23억 대비 29%가 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심의회에 앞서 지난해 말 2019년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진안군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통해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다.

사업대상 선정 결과는 농가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사업 추진요령과 보조금 교부 신청 등 안내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백수오 용기재배 현장실증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사업들은 농가들이 사업별 적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사업 담당자와 사업 대상자 간 1:1 맞춤형 기술지도도 펼칠 방침이다.

김필환 소장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기술지도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개소

진안군은 20일 진안을 진주로 985-19에 예비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인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문을 열었다.

군은 1966년 10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2005년 3만 명이 무너진 뒤 지금은 2만5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전략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관내유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전라북도 귀농귀촌활성화사업 공모 선정되어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는 지상 1층 292㎡ 규모로 교육 및 상담실과 게스트 룸 5개,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17년 실시계획 용역 후 여러 차례 귀농귀촌관련단체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진안의 청정 이미지를 강조한 친환경목구조를 설계에 반영하여 2018년 12월 준공됐다.

시설 운영 및 관리는 군에서 직접하며 상담은 진안군 귀농귀촌인협의회(회장 박영복)에서 나눠 운영된다. 군은 시설관리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진안의 여러 정보를 습득하는 종합안내 창구이자 귀농귀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약 티켓제 시행 간담회

장수군은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 농업기술센터 서정원 소장, 장수농협협동조합,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장수군지회 관계자 등 1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약티켓제 시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작물병해충방제 확대지원사업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

음으로 장수군에서 시행되는 농약 티켓제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간담회를 통해 작물보호제(농약)티켓제 시행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 농약 티켓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